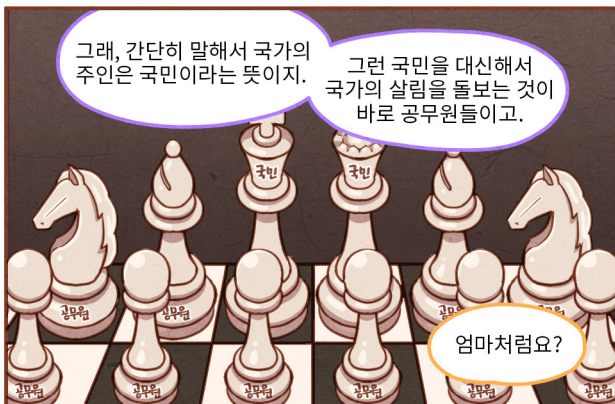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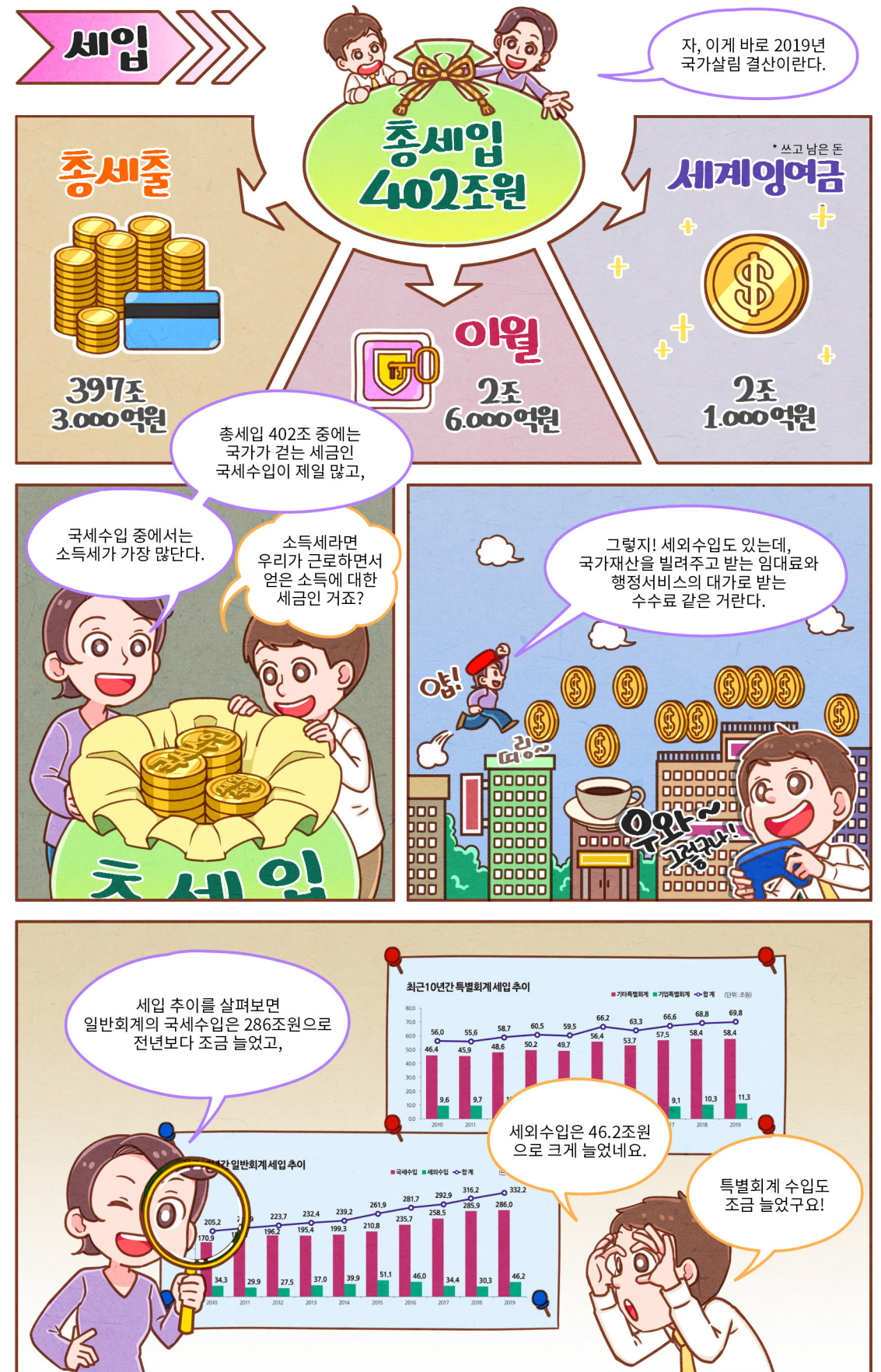


국민과 함께보는 알기쉬운 국가살림 2019

그림 박혜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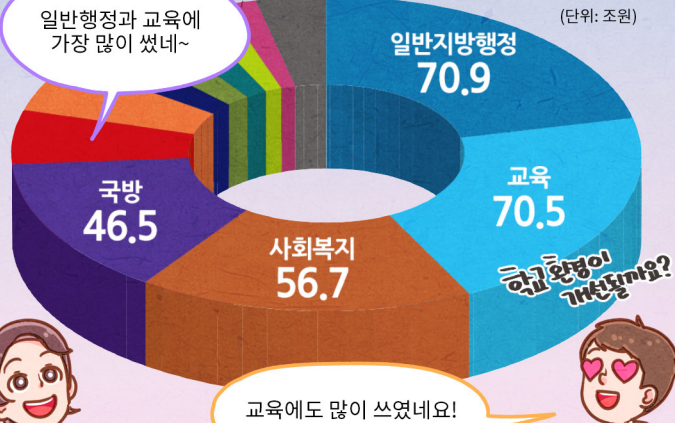




세출

그럼 이렇게 얻은 세금을
과연 어떻게 썼는지,
한번 볼까?

일반행정과 교육에
가장 많이 썼네~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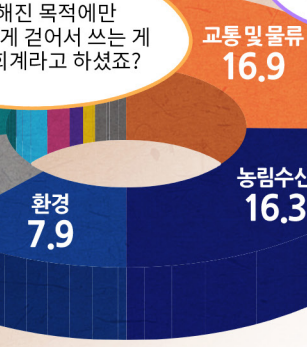
교육에도 많이 쓰였네요!

그렇지, 우리 아들 학교 시설비,
선생님 월급, 무상교육 등도
다 이런 돈이란다.

그럼 특별회계에서는
어떻게 사용 됐어요?

정해진 목적에만
특별하게 건어서 쓰는 게
특별회계라고 하셨죠?

(단위: 조원)



그렇지. 특별회계는
교통 및 물류에
가장 많이 사용됐는데

예를 들면,
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
출국납부금을 낸다는
사실 알고 있니?

출국납부금이요?

그래, 항공료에 포함이 되어
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 하지만
납부했던 돈들이 도로를 건설하는 등에
사용된 거야. 이런 게 바로 특별회계지.

내가 냈던 만 원, 이 만원이 모여
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
도로가 건설 되다니, 멋져요!



지출 총규모로 보면
한 해 동안 교육에 가장 많이
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.

교육강국
대한민국이라는
타이틀이 아깝지
않은 결과지?

우와,
무려 75조원!

(단위: 조원)

● 일반회계
● 특별회계

이렇게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을
합해서 통합재정이라고 하는데,
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어보니

2019년 통합재정수지는
12조원 적자였단다.

총수입 473.1조원
- 총지출 485.1조원
통합재정수지 △12조원

적자요?! No!!

거둔 돈에 비해 쓴 돈이
많다는 의미지.

마지막으로 기금을 보면,
전년 대비 51.7조원이
증가했어.

그럼 총지출은
621.6조원!
어마어마하네요~

51.7조원
증가
2018
수입·지출
569.9조원

2019
수입·지출
621.6조원

*연금 등
이제 사회보장성기금에
대해 이야기 해볼까?



사회보장성기금은 매년
연금의 수입액이 지출액을
크게 웃돌기 때문에

2019년 사회보장성
기금수지는 42.4조원
흑자야.

그런데 사회보장성기금은
미래의연금 지급에 대비해서
쌓아두고 있는 돈 아니에요?

맞아, 사회보장성기금이
아무리 흑자라고 하더라도 이걸
그 해의 재정 흑자라고
볼 수는 없단다.

총지출을 빼면
총수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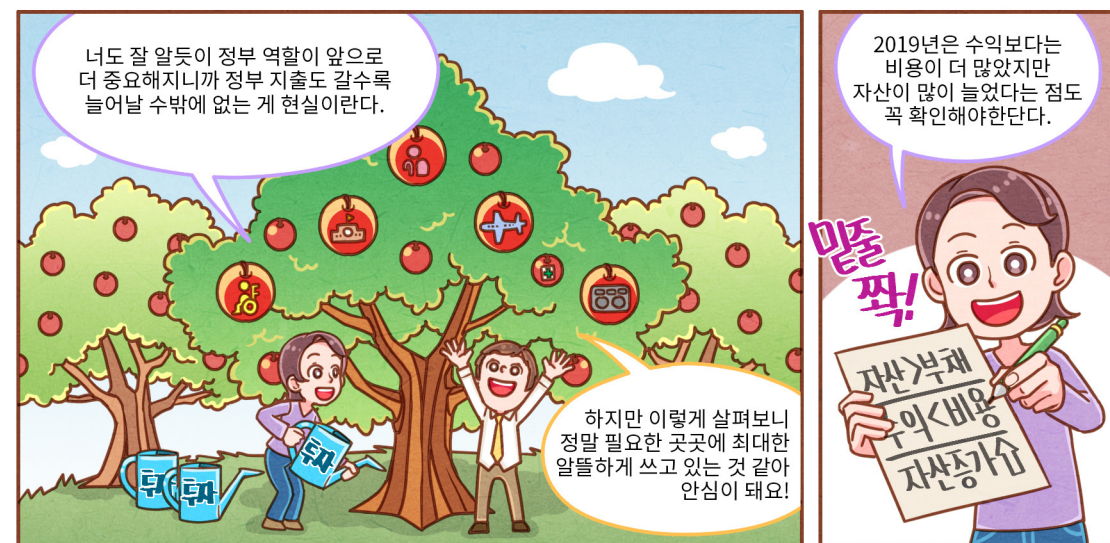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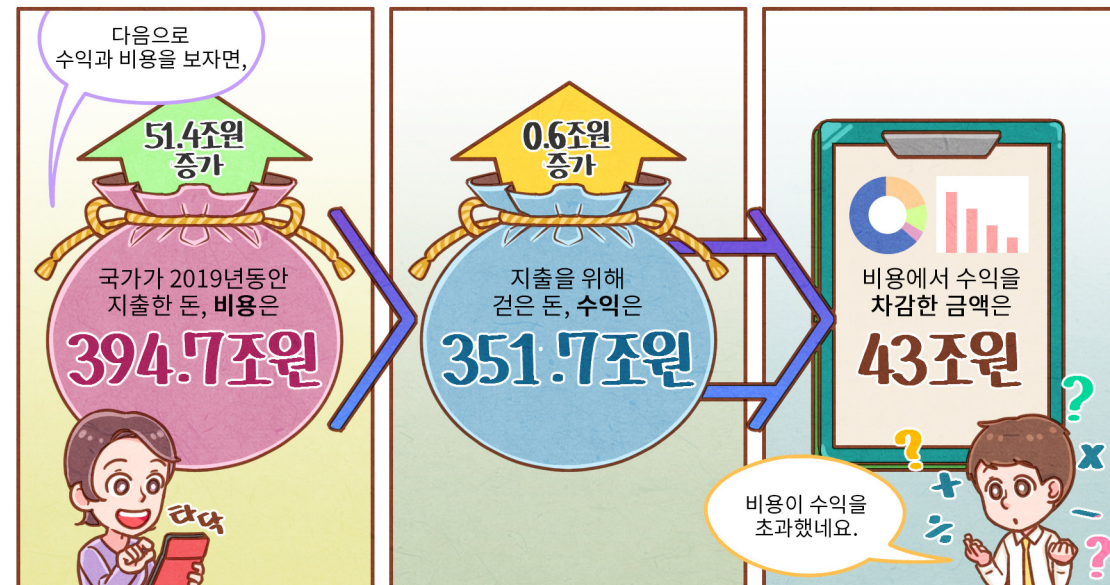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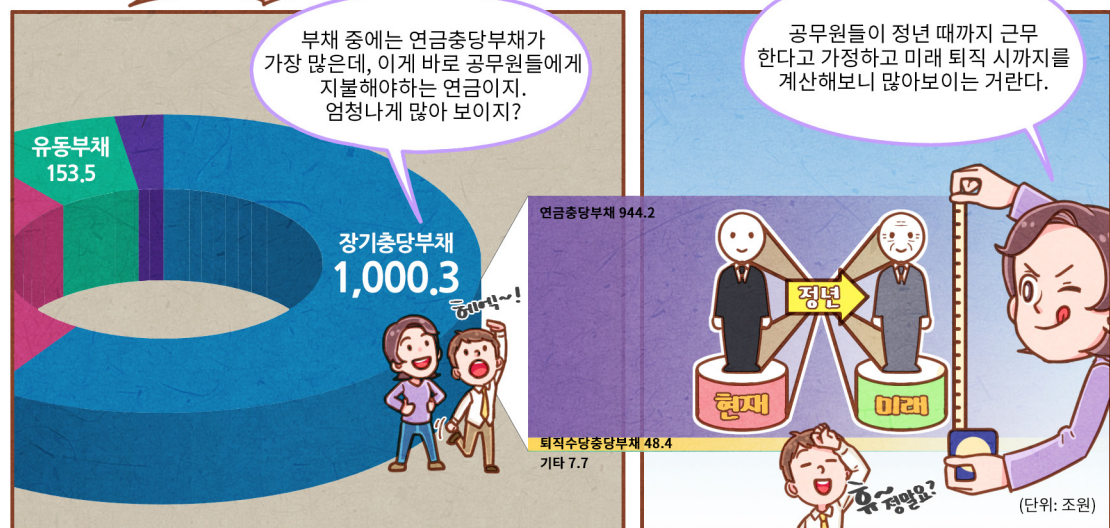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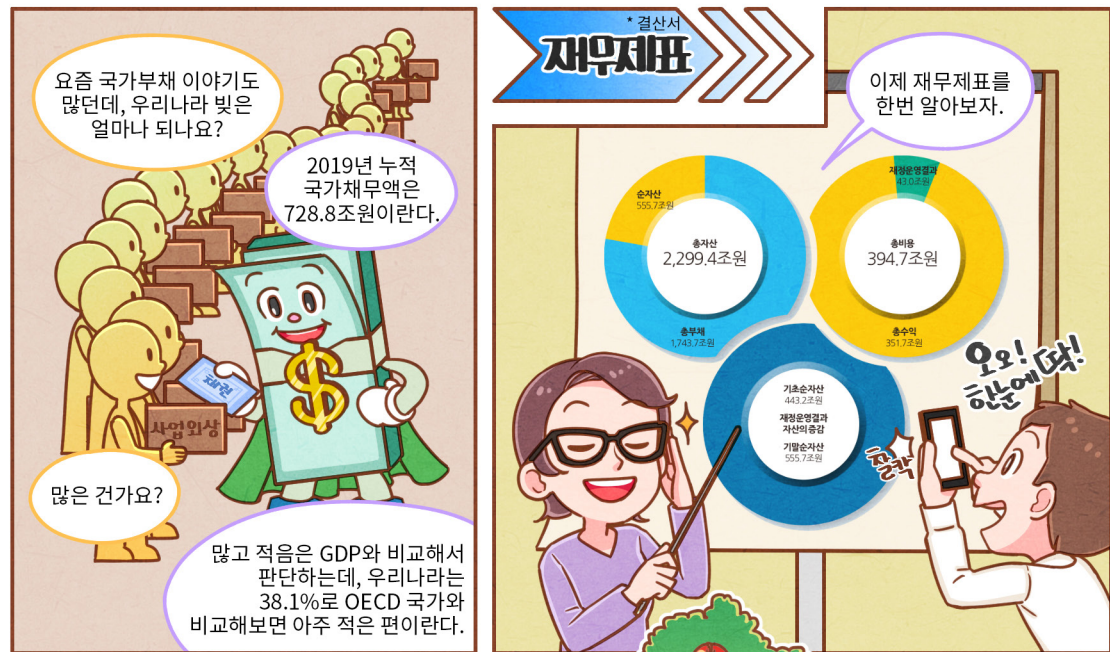
국민연금

통합재정수지

-12조원
-42.4조원
-54.4조원

그렇게 통합재정수지에서
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규모를
관리재정수지라고 해.

통합재정수지 적자 12조원에서
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.4조원을
다시 빼면 54.4조원 적자네요.





한국재정정보원

Korea Public Finance
Information Service



QR 코드로 접속하시면
「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쉬운 국가살림 2019」
PDF로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